



Taeyang Metal Industrial CO.,LTD

태 양 가 족

2003
통권 제19호

1

• 발행일: 2003년 1월 1일 • 발행인: 한우삼 • 발행처: 태양금속공업(주) •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5번지 • 홈페이지: www.taeyangmetal.com • 편집위원: 류영수, 최성규, 이일두 • 편집: 이진경 • 전화: 031) 490-5518



버리고 비우는 일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 합니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이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일테지요.

일상의 소용돌이에서 한 생각 돌이켜 선뜻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련없이 자신을 떨치고 때가 되면 푸르게 푸르게 잎을 띄우는 나무를 보십시오.

찌들고 지쳐서 뒷걸음치는 일상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부단히 자신을 비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는 마음의 짐 일테지요.

욕심을 제하면 늘 행복함을 알면서도 선뜻 버리지 못하는 삶의 힘듦 보다는 내면의 욕망이 자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가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할 불혹에도 버림의 지혜를 깨우치지 못하는 것은 살아온 것에 대한 아쉬움과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초조함이 아난가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태해진 지성과 길들여진 관능을 조금씩 조금씩 버리고 아름다움과 너그러움으로 채워가는 참다운 지혜가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잊지 않으리라는 다짐도 해봅니다.

흐뭇함이 배어있는 감동, 정갈함이 묻어있는 손길, 당당함이 고동치는 맥박 사랑함이 피어나는 인생을 위해 마음 비우기를, 미움과 욕심 버리기를 열심히 연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TY**



태양가족

Taeyang Metal Industrial CO.,LTD

2003
통권 제19호

1

社訓

信 信 實
義 用 力



사장 방침

1. 품질 경영
2. 글로벌 경영
3. 내실 경영

C O N T E N T S

생각하는 휴게실 2

경영자칼럼 4

태양뉴스 6

공정소개 7

기획 시리즈 8

새해인사 10

테마가 있는 이야기 여행 14

에세이 16

신뢰와 창조 17

잊지 마세요 18

축하게시판 19

행복한 가족주의 20



한 우 삼
대표이사 사장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가족이 됩시다!

존경하는 태양가족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2003년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해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태양금속의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태양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임직원 여러분들의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고 회사도 더욱 발전하는 알찬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사회 안팎에서 '희노애락'의 인생여정이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실감나게 펼쳐졌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6월에는 꿈만 같아 보였던 '월드컵 4강신화'가 눈앞에서 실현되었고 9월에는 때늦은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해 우리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진 두 여중생을 추모하고 불평등한 SOFA 규정을 개정하자는 국민적 분노를 담은 촛불들이 12월의 거리를 밝혔으며, 불과 2주전에는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책임질 21세기의 첫 대통령을 선출하여 기대와 불안 속에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자동차 업계는 특소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와 내수경기 활성화 덕분에 내수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려 국내 자동차 산업에 있어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만 그러한 호황도 속을 들여다보면 완성차 업계와 일부 대형부품업체들만이 누리는 잔치였을 뿐 우리회사와 같은 중견업체를 비롯한 중·소 부품업체들은 여전히 대형업체의 그늘에 가려 자동차 산업이 맺은 열매를 그저 멀리서 바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완성차 업체와 대형부품업체들의 단가인하 요구는 더욱 거세졌으며 국내외 동종 경쟁업체들의 납품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경쟁이라는 말이 21세기 기업경영의 테마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맞서야 할 영원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태양가족 임직원 여러분!

이제 1등의 지위를 갖지 못한 기업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2등, 3등으로는 성장은커녕 존립자체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03년 자동차 산업경기는 작년과 같은 폭발적인 신장세는 아니더라도 견조한 증가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폭의 증가세도 대부분 완성차 업체와 대형부품업체가 누리는 과실이지 우리와 같은 부품업체에겐 계속적인 단가인하 압력과 냉혹한 경쟁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고의 향한 열망과 승부근성, 도전정신을 갖추지 않는다면 반세기의 전통을 가진 우리 태양금속이라고 해서 언제 어느 순간에 2등, 3등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우리 태양금속이 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현재 완성차 업체들과 일부 대형 부품업체가 누리고 있는 달콤한 성장의 열매를 우리도 같이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불고 있는 변혁의 물결은 경제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구대의연하고 고루한 사고와 발상으로는 더 이상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오랜 전통과 경륜, 업계 1위라는 영광의 훈장들은 어쩌면 장식장에 잘 보관된 기념패나 감사패와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역점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여 얼마나 저렴하게 질 좋은 제품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태양금속이 대한민국 냉간단조업계의 대표주자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2003년도 경영방침으로 정하여 추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품질경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일자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제조물 책임(PL)법은 제조업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조·유통시켜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당해 기업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제 사소한 단 하나의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지도 모르며 품질안전에 자신이 없는 기업은 더 이상 시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제조업체들은 경기불황 및 경제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술개발을 외치고 있지만, 기술력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키우기 힘든 것이므로 최고의 차선택으로서 품질경쟁력을 통한 돌파구를 찾기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확고한 품질경쟁력이 바탕이 되어야 세계 진출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우리회사 품질보증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6시그마 경영체제의 구축과 ISO 14000시스템 정착에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글로벌 경영입니다.

국내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의 원가구조로는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제조비용을 무기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대만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제품과 경쟁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거래처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저는 글로벌 아웃소싱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아웃소싱 시스템은 우리 회사가 품질 및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제품에 대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하여 회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자는 경영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품질보증 및 물류시스템을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정보기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관리 시스템의 개선도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그 동안의 노하우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보화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에 있어서는 항상 개선하고 연구하는 자세로서 우리 태양금속이 21세기에 도 경쟁력이 있는 세계 최고의 냉간단조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내실경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의 경제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회사의 최대 고객이자 작년에 기록적인 실적을 보여준 현대·기아자동차마저도 2003년에 들이닥칠 지도 모르는 경제불황에 대비해 내실경영을 주요 경영정책으로 삼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원가절감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생산부문에서는 우선 설비가동율을 획기적으로 높혀 생산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부적인 공정개선뿐만 아니라 당사 매출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설비에 대한 개선까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므로써 원가절감 효과가 극대화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태양가족 임직원 여러분!

오늘날 자동차 부품 업계의 경쟁기준은 규모와 전통보다는 품질과 가격경쟁력에 있습니다. 우리 태양금속의 임직원들은 이렇게 변화된 조류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읽고 스스로 앞서서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태양가족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단합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문화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태양금속을 강한 기업으로 만들어 내는 첨병이 되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됩니다.

여러분께서 무한한 애정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태양금속을 위해 금년 한 해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미년 새해 아침을 맞아 태양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새해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다국적 기업 Honeywell사로부터 품질 우수업체 선정

당사는 12월 11일(수)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Honeywell사 주최 "Supplier Conference"에 참석한 40개업체 중 품질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상패를 수상하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유재성 전무가 참석하였으며, 이번 시상을 통해 당사는 세계 속에서 우수한 품질력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 제39회 무역의 날 표창장 수상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주관하는 '제39주년 무역의 날' 기념행사가 12월 20일(금) 오후 6시 호텔롯데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 한우삼 대표이사 사장은 무역진흥을 통해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표창장을 수상했다.

● KBS1 TV 특집다큐멘터리 "신 메이드 인 코리아 0.01mm의 승부" 방영

12월26일(목) 오후 12시 KBS1 TV 특집 다큐멘터리 "신 메이드인 코리아 0.01mm의 승부"라는 프로그램에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 명차의 벽을 뚫고 자동차 핵심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당사의 모습이 약 8분간 소개되었다.

※ 방송시청 : http://www.kbs.co.kr/rekbs/1tv_20021226.php

● 동절기 화재예방 특별 소방 교육 및 훈련 실시



12월 4일(수)부터 12월 6일(금)까지 30여분 동안 사내광장에서 전 사원을 대상으로 동절기 화재예방 특별 소방 교육훈련이 실시되었다. 금번 교육훈련에서는 소방시설 사용방법, 화재예방 방법, 화재시 조치사항 등이 교육 되었으며, 무관심과 방심으로 발생 될 수 있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화재예방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상조회 태양가족 돕기

상조회에서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태양가족 돕기에서 이인희(생산4반) 사우, 김형근(영업2팀) 사우에게 각각 1,000,000원의 기금을 전달하였으며, 현재 병원에서 투병중인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공장동 탈의실 발 마사지기 비치



태양금속 노조에서 12월 26일(목) 임직원의 복지 및 건강을 위해 공장동 12개의 탈의실에 발 마사지를 비치하였다. 사원들은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발마사지를 통해 하루의 피로를 풀고 활력을 찾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TV**

우리의 제품 이렇게 만들어진다.

— 표면처리(5)

김제형 차장 | 표면처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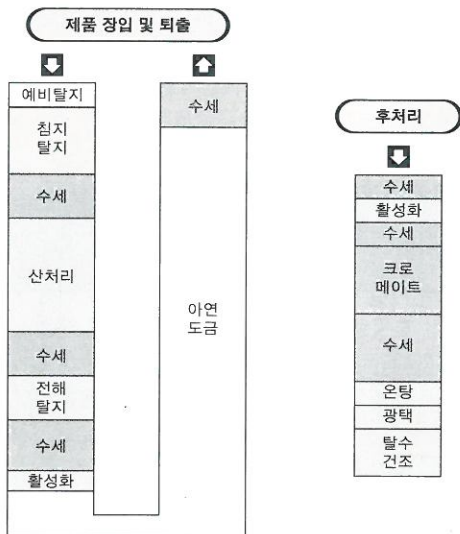
생산공정의 마지막 공정인 표면처리 공정은 우리 주변에서나 생필품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정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악세사리, 귀금속, 숟가락, 젓가락 등 대부분의 제품이 도금을 걸쳐 완성되기 때문이다.

표면처리는 쉽게 말하면 금속표면에 생성 또는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 (먼지, 녹, 때)을 제거시키고 제품의 부식, 내마모성, 접촉저항의 개선, 침탄(浸炭)을 방지하여 제품의 내식성과 밀착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도금은 방법과 용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며, 현재 당사에서 사용하는 전기도금의 원리를 이용한 아연도금기와 화학도금을 이용한 인산염 피막 도금기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연도금은 철제품에 도금을 해서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연을 표면에 얇게 입히는 것을 말하며, 도금만 한 상태에서는 부식 및 변색하기 쉽기 때문에 4종류의 크로메이트 처리(백색, 황색, 흑색, 국방색)를 통해 제품의 광택과 내식성을 강화시킨다.

아연도금의 공정을 살펴보면,

전처리 → 아연도금 → 후처리 → 제품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곳의 공정에서 작은 실수가 있어도 전량 불량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며,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이 아연 도금을 걸친다.



또한 인산염피막처리는 금속을 묶은 인산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금속의 표면을 난용성의 결정질 인산염(피막)을 만들어 금속의 고유성질을 바꾸는 것을 말하며, 특히 내마모성이 강해 엔진볼트에 이용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표면처리란 “여자가 화장을 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은 화장을 통해 이물질 제거 및 자외선 차단 효과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도금 또한 제품의 이물질을 제거 차단하여 제품의 내식성을 강화하고 착색을 통해 좀더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TY**

2003년 기업의 화두

“글로벌 경영”의 중요성

글로벌 글로벌 경쟁은 21세기에 있어서 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글로벌을 최고의 경영 목표이자 지속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 어느 기업이라 할 것 없이 세계 경영이다, 세계 일류다 등을 외치며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는 기업은 뒤떨어진 기업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유수의 기업들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건설하고, 글로벌 R&D 센터를 설립하고,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식의 해외 진출만으로 글로벌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글로벌 경영은 그 자체가 목표인가 아니면 세계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인가? 즉 국내 시장의 한계에 따라 시장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글로벌 경영은 21세기에 있어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급격한 환경의 변화들이 기업에게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경영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역량이야말로 향후에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될 수 있다.

글로벌을 이토록 중요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세계 단일 경제 체제의 성립이다. 곧 '다치게 될 완전한 시장 개방과 자유 경쟁은 기업들이 자국 시장의 바운더리 내에서 안주할 수 없도록 한다. 정부의 보호 아래 지금까지 향유해왔던 안정적인 시장 지위나 수익성은 막대한 경쟁 우위를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의 진입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더 이상 국가간의 경계가 무의미한 상품이 된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 또한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첫째, 전 세계의 기업들을 경쟁자로 간주하고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 이제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의 우수한 기업이 직접적인 경쟁자라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하며 이들과의 경쟁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세계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자국 시장에서도 몰락할 수밖에 없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제 더 이상은 자국 시장과 해외 시장의 구분조차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쟁의 상대를 전세계로 간주하고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생존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기업의 글로벌 경영은 단순히 시장 확대와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부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명확히 자리매김 되어진다.



둘째, 글로벌 시장으로의 사업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장을 위한 역량의 확보를 위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지역적 확대와 그를 통한 매출과 수익의 성장을 확보해야 한다. 수익의 성장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투자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글로벌 경영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경쟁 우위의 확보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은 규모의 경제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시장 확대와 그에 따른 생산의 통합, 정제화된 공급자로부터의 조달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으로써 코스트를 감소시켜야 한다. 거기에서 낮은 원가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로의 생산 기지 이전을 통해 원가를 더욱 절감시킬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경영을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얻는 것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함으로써 자원의 최적 활용까지 얻어내야 한다.

타 기업에 있어서도 글로벌 경영은 더 이상 성장을 위한 목표가 아니다. 생존을 위한 수단이자 새로운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이다. 글로벌 경영을 통한 경쟁 우위의 확보는 미래의 경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글로벌 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역량의 구축을 위해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 기업은 국내, 국외 시장 모두에서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화의 제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즉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동시에 놓고 글로벌 경쟁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를 잘 파악하고 대응하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퇴출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지금은 과거보다 한단계 더 위에서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다.

社 告

월간으로 발행되었던 『태양가족』사보가 좀더 알차고 유익한 『태양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 계간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태양가족』사보를 성원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03년 4월 새로운 『태양가족』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새해인사

각 팀장이 전하는 새해 메시지



이지영 팀장
기획·무역팀

■ 50년을 신화처럼 일으킬 그 백년대계를 내년에는 세워봅시다.

기획팀 그리고 무역팀 팀원 여러분! 지난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어떻게 인사말을 전해야 할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저 가느니 세월이요. 느느니 나이인데 이리저리 엉켜서 모나지 않게 잘 지내봅시다."라고 하면 너무 인생이 비참한 것 같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소원성취 하세요."하자니 너무 무미건조하고... 더 먼 앞날을 위해 보다 희망찬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한번 꿈과 희망을 가져봅시다. 바로 우리의 비전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스스로 비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50년을 한결같이 달려온 우리의 역사를 토대로 또 그리고 50년을 신화처럼 일으킬 그 백년대계를 올해에는 세워봅시다. 그러면 희망찬 우리의 미래가, 행복해야 할 우리의 앞날이 보일 겁니다. 진정 살아있는 나를 위하여 건배합니다. ※추신: "광두야 장가가자! 그래야 일두도 간다."



정동찬 팀장
국내·해외프로젝트팀

■ 세계 속의 태양금속으로~

국내 하드웨어 업계 1위라는 명칭에 우리는 너무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세계는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 기술에 맞추어 최고의 기술수준으로 높여야하고 또한 국제수준의 품질과 제조원가에 맞추어야 세계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에서 1위가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 세계에서 1위가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1,2,3위 모두가 웃을 수 있습니다만, 세계 시장은 국경 없는 전쟁터입니다. 전쟁에서 2위는 없습니다. 올해는 태양금속 구성원 모두가 세계수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1인자가 되어 다함께 세계 속의 태양금속을 만드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순환 팀장
전산팀

■ 곤조 있는 부서 전산팀 팀원에게

곤조 있는 부서, 뭉칠 줄 아는 부서 전산팀 직원 여러분! 지난 한해 모두 수고했습니다. 커다란 벽인 공장동과 본관동의 정보단절을 네트워크 구축과, 오래된 영업과 생산의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재 구축한 뜻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자기 분야에 자신의 의견을 소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산팀! 일의 성패를 떠나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장다구를 갖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전산팀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부서입니다. 한해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정철수 팀장
영업관리팀

■ 우리 營業管理 팀원에게 2003년 癸未年에 바라는 마음

새해를 맞아 팀원이나 여러분에게 무심(無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분별하여 참견하지 말고 좋은 일을 겪든지 좋지 아니한 일을 당하든지 마음을 항상 편안히 하고 무심(無心)하라.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만법(萬法)이다. 때로는 숙맥같이, 병신같이, 소경같이, 귀머지 사람같이, 어린아이 같이 지내면 마음에 절로 망상(妄想)이 사라지나니.

무심의 마음을 갖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다보면 마음의 평온이 찾아올 겁니다.



새해인사



박원익 팀장
강구영업팀

■ 경험에 기초하지 않는 지식은 한계가...

인간 심리가 잘 나타난 글이라고 생각되어 적어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오는 말 중에
인간은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보이나,
느끼고 나면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그 업무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태양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박남수 팀장
영업1팀

■ 영업1팀 사원 파이팅!

영업1팀 여러분!
2003년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새해인사를 하려니 무척 쑥스럽군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영업1팀"이라는 4행시로 새해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영 : 영원히 함께 동거동락(同居同樂)하는 태양성에
업 : 업무에서 책임과 최선을 다하고
일 : 일생에 영업팀에서 큰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팀 : 팀워크로 2003년을 맞이합시다!!



정연욱 팀장
영업2팀

■ 한마음 한뜻으로 한해를 맞이 하길

지난 한해도 매출목표달성을 위해 뒤돌아 볼 시간도 없이 힘차게 달려온 팀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두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료애를 발휘하여 밤늦게 까지 그날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게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뜨거운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목표는 달성치 못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위안을 삼으며 금년 한해는 우리팀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출목표달성은 물론 각자 성취하고 싶은 목표까지 달성하여 다같이 웃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팀원들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 바라며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엄준열 팀장
재경팀

■ 프로정신을 갖는 팀원이 되길 바라며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한해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새 출발과 함께 시작되는 수많은 일과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올해 저는 저희 팀원 분들에게 "프로정신을 갖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다보면 업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인정받는 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정신이 회사의 미래를 밝게 하고 스스로 자기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원 여러분 프로정신을 가진 프로가 되시길 바라며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긴장하고 밝아질 미래를 내다보는 슬기와 지혜를 가진 훌륭한 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인사

이종훈 팀장
구매팀

■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길

임오(壬午)년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희망찬 계미(癸未)년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저희 구매팀 팀원들도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의 포부와 꿈을 갖고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결국은 끝을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만큼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에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팀원 모두 건강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중희 팀장
관리팀

■ “있을 때 잘하자”

우리가 우스게 소리로 잘하는 얘기로써 모든 이들이 공감할 하지만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회사가 있음에 내가 있고 내가 있음에 동료와 있다. 또한 가정이 있음에 내가 있고 내가 있음에 가족이 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내가 있음에 존재한다. 우리의 삶은 늘 후회의 연속이다. 이 모든 후회가 있을 때 잘하지 못해서 일어난다. 학생으로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음을 후회하고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야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하지 못함을 후회하는 등 그 때 왜 잘하지 못했을까를 항상 후회하게 된다. 새해부터 우리 모두는 더 이상의 후회는 하지 말자. 부모님이 곁에 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정에 있을 때 가족의 일원으로 가족들에게 잘하고, 회사에 있을 때에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같이 생활하는 동료에게 잘하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세상은 분명 살아볼 가치가 있는 좋은 세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현종 팀장
생산관리팀

■ 우리 생산관리팀 직원들에게...

2002년도 드디어 막을 내렸군요.
어느덧 2003년이 되었네요. Millenium 운운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정말로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지난 한해동안 서로 바빠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술자리를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다보니 조금 더 친숙한 얘기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글로써나마 우리 생산관리팀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승권 과장, 이창섭 직장, 민광희 차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는 장가갈 사람도 하루 빨리 서둘러 야죠! 특히 이종로 조장..., 버터 봐야 그제 그것일텐데 얼른 장가가고.. 김한용 사우는 내년 크리스마스엔 옆구리에 뭘까 꼭찬 느낌이어야 할텐데... 아! 또 있네요. 조하고도 윤호 사우 정말 못 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 알 수가 없네! 김성일 사우는 태어날 2세가 누굴 더 많이 닮았을까? 궁금하지! 엄미경 사우 또 어디(?)간다고 퇴사하는 것 아니야? 시집이라고나 할까!
하여튼 불철주야 판매 및 생산을 위해 애들 쓰고 계신 우리 생산관리 팀 직원 여러분! 올해는 더욱더 알찬 한해가 되도록 매진하고 특히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세모의 어느 날... 일만 되게 시키는 사람이.





박우식 팀장
생산팀

■ 희망을 실현시키는 계미(癸未)년을 위하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을 때입니다.
저도 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정돈하고 싶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어찌든 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서로를 삶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한 작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 자신이 위로와 격려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미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직장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월이 참 빠르구나"하시던 할머니 말씀처럼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꾼인가 봅니다. 올해는 따뜻한 겨울이라고 하는데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태양가족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랍니다.



홍성문 팀장
외주협력팀

■ 새해에는 더욱더 빛나고 영롱한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지난 한해 노고 많으셨습니다.
최고장을 비롯해 노총각 추대리, 송일씨, 24시간 근무 중(?)인 태일이, 준영이, 주호, 신참 관홍이 그리고 설틈없이 밤늦게까지 제품을 실어 나르다 허리병이 도진 영찬형, 용주씨, 홍일점 태홍씨까지 여러분은 진정 우리 부서의 보석입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빛나고 영롱한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부디 건강에 유념하시고, 바라는 소원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박찬수 팀장
기술개발팀

■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계미(癸未)년의 희망찬 한해가 밝아왔습니다.
태양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에 월드컵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벅차 오르는 단어이기도 한 바로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축구대표 선수들이 그 꿈을 이루어낸 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하나된 태양금속의 대표선수가 되어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각 분야에서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항상 꿈을 가진다면 세계 최고의 단조전문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태양 파이팅!



최병문 팀장
품질보증팀

■ "신니엔 콰이어", "콩시파차이"~~ ^^

품질보증팀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壬午)년 한해가 끝났습니다.
급변하는 경제구조와 날로 심화되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한치의 오차 없이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에서는 새해아침 "즐거운 새해 되세요!"라는 뜻의 "신니엔 콰이어(新年快樂)"라는 덕담과 "부자 되세요!"라는 뜻의 "콩시파차이(恭喜發財)"를 즐겨 쓴다고 합니다.
癸未年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신니엔 콰이어", "콩시파차이"~~ ^^

겨울사진 콘테스트



★얼치락 뒤풀이

박정덕 사우 | 기획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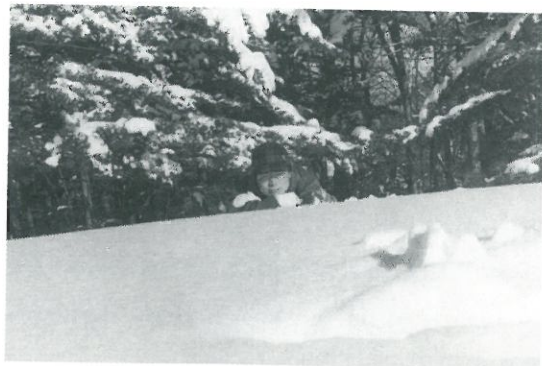
95년 영업관리 근무당시
영업부, 영업소 여직원들과 함께 청평군 청명
유원지에서 찰칵~.



★아빠 힘내!!

김찬수 대리 | 강구생산팀

88년도 안산 팔각정 근처에서
눈이 내리던 어느날 나무썰매를 타고 있는 작
은 딸 혜진이를 밀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큰딸의 애처로운 눈빛
이 느껴집니다.



★눈 속에 그 남자~

임병훈 사우 | 영업관리팀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 앞에서

겨울이면 오대산 비로봉에 오릅니다.
108봉우리가 어우러진 산 정상에 서서 한 해
를 무사히 보냈을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고 가족의 안녕과 축복을 기원하며
산행하고 찍은 사진

테마가 있는 이야기 여행



★가족과 함께 눈 속에서

송병천 반장 | 열처리과

90년 1월 1일 새해에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내린 팔각정 연수원에서 가족과 함께 신년기념으로 찰칵~



★유니콘을 타고 싶은 그녀들

이진경 사우 | 기획팀

96년 12월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떠난 경주의 한 카페 앞에 놓인 유니콘을 보고 타고 싶은 마음에 엉덩이를 쭈~욱 빼고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한방 찰칵~



★눈보라 속 추위와의 싸움

길선옥 사우 | 강구생산과

2002년 산악회 태백산 등정 도중에 찍은 사진 얼어죽을라. 뽕뽕 싸매고 동여매고 올라간 태백산의 설경과 눈보라 속에서 찰칵.



★방어기지 구축 쏠테면 췌봐!!

송병탁 직장 | 열처리과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87년 눈싸움을 위해 방어기지를 구축한 송병탁 직장의 자녀 송태규 군. 완성된 눈 속 방어기지 앞에서 잠깐 일어난 사이에 사진에 찍혔네요. 지금 송태규 군은 어렸을 때 쌓았던 방어기지를 지금 군대에서 열심히 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인생 간이역

김병규

나는 시골의 보잘 것 없는 역이 좋다. 기차로 지나가면 눈 깜짝 할 사이에 통과해 버리는 작은 역의 무너져 가는 나무 울타리에 기대서서 지나가는 기차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이들이 옛날에는 더러 있었다. 나 자신도 그런 아이였다. 역에는 얼마 안 되는 코스모스 꽃이 피고 역장이 홀로 쓸쓸히 선로를 건너면 뒤에는 조용히 두 가닥의 레일이 뻗어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울타릴 떠나지 않았다. 또 지나갈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권태롭기만 한 텅 빈 역은 어린 날의 꿈을 조용히 키우고 있었다. 울타리에는 어린 시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 있는 듯 하다. 나는 가만히 회상해 본다. 나의 인생행로에서 나는 몸과 마음을 조용히 기댈 수 있는 곳을 찾는다. 꿈꾸지도 않고 조용히 쉴 수 있는 작은 역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작은 역이라고 했다. 더욱이 간이역이 좋다. 어렸을 때 몇 개의 산과 고개를 넘고 긴 골짜기를 지나 삼 십리 먼길을 조그만 역에서 기차를 타고 캄캄 어둔 굴을 빠져 나온 다음 내린 곳은 간이역이었다. 시집 간 사촌누이를 찾아간 길이었다. 간이역은 참 간단했다. 역사도 없이 승객은 그냥 내렸다. 그것이 신기했다.

그 뒤부터 나는 간이역이 싫없이 좋았다. 아무런 격식도 없고 그래도 추억은 오래오래 남았다. 그 허전함이, 어쩌면 적막감이 오히려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큰 역보다도 간이역이 나의 마음을 때려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는 모른다. 간이역 같은 곳에 잠시 쉬어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뿐이다. 어찌 내가 화려한 곳을 바라겠는가? 인생은 잠깐 쉬다 가는 것인데 말이다.

인생행로에서는 하나 하나의 여정(旅程)이 중요하다. 여행의 진실한 부(富)는 세부의 여정에 있다. 한 여정을 뛰어넘어 가면 그만큼 공백이 생긴다. 이어가는 고리가 끊기면 비약이 생기고 비록 목적지에 도달할지라도 공백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간이역은 차라리 텅 빈 공간이다. 그것이 바로 들판으로 이어지고 꼬부랑 소로로 끌려 들어가면서 초가마루가 나타난다. 이 모두가 빨려가듯이 이루어진다. 거긴 아무런 말도 필요 없다. 사람들은 그런데서 고만고만하게 살아간다.

간이역은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한 마음의 지탱을 받아 그래서 넉넉하게 버티고 있다. 기차를 탄 사람도 간이역이 있기에 거길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착실히 도착할 수가 있다.

등산의 경우 한발 한발의 움직임에 따른 굽이굽이의 산길이 하나 하나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 것을 음미하면서 산을 오른다. 거긴 뛰어 넘든가 한 군데를 빼먹을 수가 없다. 그 모든 곳이 구실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그는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는 그런 즐거움을 스스로 획득한 것이요, 남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다.

간이역에 한번 내린 것 밖에 없는 그 간이역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그 이유를 나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기대를 건다. 그때 어린 나에게 나는 쓸쓸했지만 지금도 쓸쓸할 뿐이다. **TY**

※essaykorea 게재

김병규 필자 김병규는 1920년 경남 고성 출신. 김병규 철학에세이 『인생산책』(문화유산, 1993) 및 『인생산책』제2집(동아대학교 출판부, 1996)으로 출간됐다.

“신뢰와 창조” 49주년을 맞아...

태양금속이 창업한지도 벌써 4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50년을 존속한다는 건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양금속이 곳곳하게 49년 동안 한길을 걸어 올 수 있었던 건 태양가족의 노력과 창업자이신 한은영 명예회장님에 “신뢰와 창조”의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49년 동안 여러 번의 고비를 이겨낼 때마다 사원들에게 당부하시던 훈시 하나를 적어봅니다.

첫째, 現難局(현난국) 經濟(경제)의 어려운 事情(사정)을 家庭(가정)과 國家的(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如何(여하)히 必要(필요)하겠는가? 이는 總和團結(총화단결)이 必要(필요)하다.

둘째, 모든 生活(생활)에 自己(자기) 맡은바, 任務(임무)에 忠誠(충성)하며 태양가족의 矜持(궁지)를 살려가자.

셋째, 服裝(복장) 몸가짐을 端正(단정)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抱負(포부)를 어떻게 구현 하여야 하겠는지를 잘 生覺(생각)하자.

넷째, 자기를 위하는 것은 남을 위하는 것이고 나아가 社會(사회)와 國家(국가)에 公憲(공헌)하는 것임을 自覺(자각)하자.

다섯째, 自己技術(자기기술)에 대하여 自己(자기)評價(평가)를 하지 말고 無窮(무궁)한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成長(성장)하여가는 姿勢(자세)를 갖자.

여섯째, 조그마한 일도 慢心(만심)하며 自己第一(자기제일)인 냥 생각한다. 後進(후진)이 先進(선진)된다는 생각을 조금도 잊지 말자.

일곱째, 自己(자기) 몸은 自己(자기)가 注意(주의)하여 危險(위험)한 難關(난관)도 突破(돌파)하는 태양가족이 되자.



자기의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總和團結(총화단결)을 통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한은영 명예회장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2003년 그리 밝지 않은 경제 환경에서 우리는 한은영 명예회장의 훈시를 되새기며 “진취적인 태양가족, 발전하는 태양가족”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항상 태양금속과 함께 하시는 한은영 명예회장님 건강을 기원하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신 오무순 여사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깜박했다구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화기 사용 방법 기억하고 있나요?
혹시 깜박 잊었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전화기 사용방법은요?

- ▲ 송수화기를 들어요.
- ▼ 송수화기를 내려놓아요.
- 다음순서로 진행해요.
- ▲▼ 전화기 훅크를 살짝 눌러요.

■ 옆 사람이 자리를 비웠다고요. 그럼 전화를 당겨 받아야하죠?

- ▲ → 전화기 *를 눌러요 → 전화통화 → ▼

■ 사내전화 착신 전환방법

- ▲ → #41 → 뚜루룩 뚜루룩 신호음 울림 → 착신 내선번호 → ▼

■ 사내전화 착신 해제방법

- ▲ → #94 → 뚜뚜뚜뚜 신호음 울림 → ▼

■ 내선 예약방법(내선이 통화중일 경우)

- ▲ → 내선번호 통화중 → ▲▼ → * → ▼
- (내선번호 통화가 끝나면 예약을 시도한 전화벨이 먼저 울리고 송수화기를 들면 예약된 내선번호로 신호가 울리게 됨)

■ 외부전화로 착신 전환방법

- ▲ → #45 → 9 → 지역번호 → 5초후 뚜루룩 뚜루룩 신호음 울림 → ▼
- (휴대폰은 지역번호부터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다)
- 사내전화 B급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함.

■ 외부전화로 착신 해제방법

- ▲ → #94 → 뚜뚜뚜뚜 신호음 울림 → ▼

■ 단축번호 사용방법

- ▲ → ##8 → 단축번호(세자리) → 5초후 신호가 울림
- (각 영업소, 신일기공(주), (주)현양, (주)신일정공이 가능 함)

■ 3자 회의 통화방법

- 전화 통화중에 3자 대화가 필요시 ▲▼ → 3자 통화 할 번호 누른다.(이때 통화중인 전화는 보류 음이 울리고 있음) → ▲▼ → ##7 → 3자 통화가 가능함.





-푸하하! 웃자!*웃어!

성격에 따른 방귀

영특한 사람 : 재채기를 하며 방귀 뀌는 사람
 소심한 사람 : 자기 방귀 소리에 놀라 펄쩍 뛰는 사람
 겁쟁이 : 방귀를 나눠서 뀌는 사람
 환경운동가 : 방귀는 썩나 환경 오염을 염려하는 사람
 간큰사람 :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있다고 맘놓고 구린 방귀 뀌는 사람
 자만하는 사람 : 자기 방귀 소리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 방귀 뀌려다가 똥싼 사람
 멍청한 사람 : 몇 시간 동안 방귀 참는 사람
 불안한 사람 : 방귀를 뀌다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
 시대파악을 못하는 사람 : 여자가 방귀 핀다고 투덜대는 사람
 귀여운 사람 : 남의 방귀 냄새를 맡고 뭘 먹었는지 맞히는 사람
 뻔뻔한 사람 : 방귀 크게 뀌고 자지러지게 웃는 사람
 부정직한 사람 : 자기가 뀌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사람
 검소한 사람 : 항상 여분의 방귀를 남겨두는 사람
 감성적인 사람 : 방귀 뀌고 우는 사람
 열간이 : 방귀 뀌고 팬티에 흔적 남기는 사람
 전략가 : 큰 웃음소리로 방귀소리를 감추는 사람
 지식인 : 자신의 주위에서 누가 뀌었는지 알아맞히는 사람

쌍둥이

분만실 앞에 세 명의 남자가 부인의 분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있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 첫번째 남자 에게 말했다.

“축하합니다. 귀여운 쌍둥이 아빠가 되셨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군, 나는 LG Twins(쌍둥이) 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되돌아간 간호사가 다시 나와 두번째 남자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세쌍둥이 아빠가 되셨어요.”

“아니, 이런 우연이 나는 삼성에서 일한단 말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세번째 남자가 기절을 했다.

그가 정신이 든후, 간호사가 물었다.

“왜 그러세요? 뭐가 잘못 됐나요?”

“나는 칠성사이다에서 일한단 말이오!!!!”



축 하 게 시 판

생일 “축하합니다”

관리팀	오중희	1. 03	생산1반	심상범	1. 16
품질보증팀	윤태호	1. 03	품질보증팀	김도영	1. 17
제품관리과	김명석	1. 04	품질보증팀	백주현	1. 17
생산관리과	김한용	1. 05	강구생산과	길선우	1. 19
생산1반	임정호	1. 05	표면처리과	김대성	1. 19
제품관리과	임정희	1. 06	생산2반	신혈원	1. 20
설비보전과	정상범	1. 06	비상계획팀	이희섭	1. 20
영업관리팀	이인기	1. 07	표면처리과	박범옥	1. 20
강구생산과	전유남	1. 07	영업2팀	오제철	1. 20
생산2반	노호현	1. 07	생산3반	김성용	1. 20
품질보증팀	김태용	1. 07	제품관리과	임순옥	1. 22
재경팀	김광섭	1. 07	생산4반	이인희	1. 22
관리팀	권종국	1. 08	재경팀	최동배	1. 22
설비보전과	조일산	1. 09	품질보증팀	김동문	1. 24
영업관리과	김일혁	1. 10	관리팀	임대순	1. 24
생산5반	이완배	1. 10	제품관리과	김규봉	1. 24
영업관리과	임병훈	1. 10	기술개발팀	박진형	1. 24
안전환경과	우준희	1. 11	생산4반	강춘길	1. 25
제품관리과	이순덕	1. 12	기술개발팀	강민식	1. 25
생산관리과	조진수	1. 12	생산2반	권오광	1. 25
생산관리과	홍치호	1. 13	생산3반	조상래	1. 25
울산영업소	박경화	1. 13	안전환경과	조도현	1. 26
기술개발팀	서용권	1. 14	품질보증팀	차준성	1. 27
생산2반	전병호	1. 14	생산6반	서상돈	1. 29
품질보증팀	박익순	1. 14	열처리과	최민석	1. 29
기술개발팀	한호춘	1. 15	설비보전과	안효길	1. 30
기술개발팀	박동구	1. 15	설비보전과	박제완	1. 30
관리팀	유현민	1. 15	생산2반	김기년	1. 30
열처리과	이상규	1. 16			

* 음력생일을 양력으로 양력생일은 양력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행복하세요”

외주협력팀 김현식 사주

결혼은요. 검은머리가 희어지도록 같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는 꾸준한 사랑, 세월이 지날수록 뚝배기 같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이라는 단맛을 더욱 내는 그런 진짜 사랑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뚝배기 같은 진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家族

"행복한 가족주의"

변치 않는 믿음과 변치 않을 사랑으로
한결 같이 걸어온 태양금속의 가족애가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 그리고 직원 가족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반세기를 걸어온 기업정신이 있습니다.
환한 미래를 열어갈 신뢰와 창조의 정신으로
百年大計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50年 半世紀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기업 - 태양금속공업(주)